

#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 한국 DAY 개최

지난 12월 16일, 주일한국문화원과 연계하여 삿포로 시내 랜드마크 '삿포로 TV탑'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한국DAY' 이벤트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장에서는 한국 전통음악 공연, 한국 영화 상영회, 우호도시 소개전 등의 풍성한 볼거리들을 비롯하여 한국 전통의상 체험, 한지공예 및 캘리그래피 클래스 같은 체험형 행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행사에 참여하며 간접적으로나마 한국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많은 방문객 분들께서 즐거워 하셨습니다.



①한복 체험 코너에서는 참가자들이 본인의 핏에 맞는 한복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②캘리그래피와 한지공예 클래스 진행 모습 ③캘리그래피 클래스 수강생 작품 ④전통음악 공연과 함께 '범 내려온다'는 대목으로 잘 알려진 '수궁가' 판소리 공연 등을 선보였습니다 ⑤우호지역 소개, 삼행시 콘테스트 수상작 및 한국 관광지 소개 코너 ⑥우호지역 소개 세미나 진행 모습 ⑦Lights On! 랜드마크 점등

홋카이도와 부산광역시가 우호제휴 체결 15주년을 맞이한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념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한국DAY' 행사는 우호 15주년 기념 사업을 같음하여 진행되었으며, 두 지역의 랜드마크에 불을 밝히는 'Lights On!' 이벤트도 실시되었습니다. 당일 저녁 삿포로에서는 '삿포로 TV탑'이 부산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타워'와 '광안대교', '영화의 전당'이 홋카이도를 상징하는 녹색으로 점등되었습니다.

# 삿포로에서 즐기는 동계올림픽

저희 교류원들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 겨울 스포츠를 체험하러 다녀왔습니다. 종목은 '컬링!'. 한국에서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 때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지내보니 더욱 크게 실감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는 일반 학생들도 교내 부활동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접하며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발견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홋카이도에는 스키장을 비롯하여 아이스링크, 컬링장 등 겨울 스포츠 종목들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수영장이 갖춰져 있어 교내에서 수영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문화충격으로 다가왔던 사실은, 홋카이도에서는 겨울에 초등학생들이 체육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스키나 스케이트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일본 대표팀 전원의 출신지가 '홋카이도'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 홋카이도은행 컬링스타디움      컬링과 친해져 보자

"컬링장? 누가 컬링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면 오산! 삿포로 시내에 위치한 이 시설은 예약 경쟁률이 300대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컬링을 즐기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저희가 강습을 들던 타임에는 옆에서 초등학생들의 단체수업이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호회 회원들이 컬링 시트(경기 레인)를 가득 메웠습니다.

중계 화면을 통해 보는 컬링은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해보면 컬링은 꽤나 체력이 소모되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양쪽의 착용감이 다른 컬링 슈즈를 신고 시트 위를 걸어가는 것부터가 난관의 시작입니다. (왼쪽 밀창은 매우 미끄럽지만, 오른쪽 밀창은 미끄럼 방지 소재로 만들어짐). 이와 같은 위화감을 극복한 후에 찾아오는 난관은 몸의 중심을 유지하며 약 20kg의 스톤을 한 손으로 굴리는 것, 스톤의 방향을 확인하며 힘을 실어 빠르게 스윙핑(빗질)을 하는 것, 스톤에 적절한 턴을 주며 굴러가는 방향과 힘을 조절하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판을 생각하며 전략을 짜야 하니 빠른 두뇌회전도 필수입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한국에서도 컬링이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홋카이도은행 컬링스타디움은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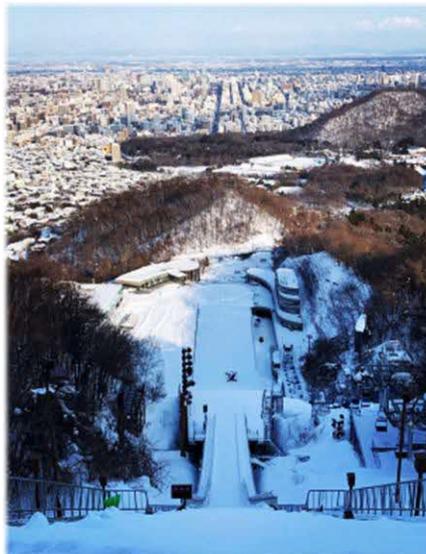


▲스톤 던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 '오쿠라야마 점프 경기장'&'삿포로 올림픽 뮤지엄'

두 시설은 '1972년 삿포로 올림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쿠라야마 점프 경기장은 시내와 가까운 곳(무려 중앙구!)에 위치하고 있어 삿포로 중심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풍경 맛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삿포로 올림픽 뮤지엄에는 역대 동계 올림픽 선수들의 유니폼과 경기복, 각종 메달, 패럴림픽 선수들의 도구 등, 치열한 경기 이면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곳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봅슬레이, 스키 점프, 스피드 스케이팅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관람이 가능합니다.



▲1972년 2월에 개최된 삿포로 올림픽 관련 자료

◀스타트 지점에서 바라본 풍경! 정면에 오도리 공원과 삿포로 TV탑이 보입니다. (※ 특별 허가를 받아 촬영하였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